

월 양 계

9월호

- ◎ 현재 외국에서는 양계업 경기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만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회를 중심으로 불황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쿼터제가 무산되고 자조금 사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시장경제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남이 줄여야 내가 잘되고, 불황이 있으면 호황이 온다는 옛 말을 언제까지 믿고 불안한 양계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 감축운동에 적극 나설 때이다.
- ◎ 장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폭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가 우기와 건기로 바뀌고 있어 장마라는 말은 이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태평양 상공의 아열대 기단 세력이 계속 커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 남해안까지 확장됐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4계절에 맞추어 사양관리가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양계산업도 기후변화에 따른 사양관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9월 이후 추석명절 전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계란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9~11월 계란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금년 3-5월 병아리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사육수수 증가가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았다. 매년 대두되는 환우금지와 노계 조기도태가 주요변수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 육계는 최근 폭염 등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육수수증가로 연말까지 닭고기 과잉이 예상되면서 가격의 약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월의 육계 평균가격은 800~1,000원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 적정 사육수수로 추정하고 있는 12만수의 원종계 숫자보다 많았던 지난해 원종계 수수와 금년 수입 예상물량인 17만여수가 가담될 경우 육계산업의 앞날은 볼 보듯 뻔하게 다가오고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직시하자.

